

이슈페이퍼 2013-03

#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이유 및 시사점

이정원



# 차례

1. 서론 .....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나. 연구내용 .....	3
다. 연구방법 및 용어 정의 .....	3
라. 연구의 한계점 .....	4
2.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현황 .....	4
가. 기관 병행 여부 .....	4
나. 응답자의 특성: 기관병행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 .....	5
3. 기관 병행 실태와 병행 이유 .....	8
가. 기관 병행 이용 실태 .....	8
나. 기관 병행 이용 이유 .....	10
4. 정책 제언 .....	13
가. 실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 .....	13
나. 정책 제언 .....	14
참고문헌 .....	17

## 표 차례

〈표 1〉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추이(2007~2011년) .....	1
〈표 2〉 아동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이용 .....	2
〈표 3〉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실태 .....	4
〈표 4〉 응답 가구의 특성 .....	5
〈표 5〉 주양육자별 기관 병행 이용 여부 .....	5
〈표 6〉 기관 병행 여부에 따른 아동의 특성 .....	6
〈표 7〉 기관 병행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	7
〈표 8〉 기관 병행 여부별 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인식 .....	8
〈표 9〉 기관 이용 실태 .....	9
〈표 1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	10
〈표 11〉 기관 병행 이용 이유 .....	11
〈표 12〉 순수한 가정 내 양육시 애로사항 .....	11
〈표 13〉 아동 연령별 기관 병행 이용 이유(1순위 응답) .....	12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으로 0~2세 영아기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이용보다는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됨(노성향, 2010: p.122).
  - <표 1>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0~2세 영아 중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54.1%로, 나머지 45.9%가 순수한 의미의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가정 내 양육 영아 수의 감소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는 0세는 2.1배, 1세는 2배, 2세는 1.5배 증가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수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만 양육되고 있는 영아의 수는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현재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아의 비율은 연령별로 0세의 약 68%, 1세의 약 47%, 2세의 약 2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표 1>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추이(2007~2011년)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인구수
전체(0~2세)	413,829	501,889	574,394	686,256	739,332(54.1)	1,367,240
0세	68,908	99,245	107,525	125,133	146,666(32.4)	451,579
1세	122,663	160,320	198,831	229,486	249,787(53.1)	470,224
2세	222,258	242,324	268,038	331,637	342,879(77.0)	445,437

주: 인구수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1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1) 보육통계(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

- 그러나, 영아기 아동의 경우 주된 양육 형태가 부모나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이고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의 형태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영아 중 10.6%는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29.4%에도 기관을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표 2〉 아동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29.4	72.8	8.0	32.3	52.5	71.7	72.7	74.2	49.9
기관+개인(A)	10.6	22.8	2.6	12.0	18.8	19.8	23.6	24.6	16.3
개인서비스(B)	17.1	0.8	26.9	14.9	7.5	1.7	0.4	0.4	9.5
A+B	27.7	23.6	29.5	26.9	26.3	21.5	24.0	25.0	25.8
미이용	42.9	3.6	62.5	40.8	21.2	6.8	3.3	0.8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1,560	(640)	(576)	(528)	(515)	512	531	3,302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V-1-3> 재구성. p.105

- 2012년도에 실시된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실태 조사'에서는 0~2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어린이집 등 기관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sup>1)</sup> 응답대상에 포함하여 영아가구의 가정 내 양육 실태를 살펴보았음.
- 5시간 미만의 '반일제' 이하 이용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집 단시간 이용은 기관 이용만으로도, 가정 내 양육만으로도 충족되지 못하는 보육 욕구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
- 또한 가정 내 양육과 기관 보육 양측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 이상적인 형태의 양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어 주목되어야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가정 내 양육 실태 파악을 위해 0~2세 영아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는 12시간인 종일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원되나, 2012년 3월 21일 이전 유아교육법에 의해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으로 정의되었던 '반일제'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결과 중 기관 병행 실태를 재분석 함.<sup>2)</sup>

- 본고에서는 부모의 양육 철학과 선택에 의해 영아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시간으로 병행하는 가구의 특성과 기관 병행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기관 병행 양육 가구의 특성 파악

- 0~2세 영아를 둔 가구 중 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나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 병행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영아기 자녀의 기관 이용에 대한 가치관, 보육 욕구를 파악함.

### 기관 병행 양육의 이유 파악

- ‘기관 병행 가정 내 양육 가구’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이유를 파악함.

### 영아 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의 시사점 도출

- 가정 내 양육을 추구하나 기관을 병행하는 가구의 특성과 욕구, 이유 파악을 통해 영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다. 연구방법 및 용어 정의

### 1) 연구 방법

#### 설문조사

- 모집단 및 조사대상

– 모집단: 전국의 0~2세 아동(생후 36개월 미만)이 있는 가구 중 아동을 현재 기관(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기관을 이용하나 반일제<sup>3)</sup>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

2) 다음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자료를 재분석하였음.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외 (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3) 현재는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나 2012년 3월 21일 이전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부분에서 ‘1일 3

- 조사대상: 전국(제주도 제외)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1,000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2) 용어 정의

- 가정 내 양육: 0~2세 영아를 '어린이집과 같이 아동이 종일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관 병행 이용 (가정 내 양육) 가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5시간 미만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로 정의함.

## 라.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도 수행 과제를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나,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그 중에서도 기관을 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 266사례로서 절대적인 사례 수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유사 대상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현황

### 가. 기관 병행 여부

- 응답대상인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1,000사례 중 26.6%가 현재 5시간 미만으로 기관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표 3〉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실태

단위: %(명)		
기관 병행 이용함	기관 미이용	계(수)
26.6(266)	83.4(734)	100.0(1,000)

주: '병행'은 하루 5시간 미만 이용에 한함.

시간 이상 5시간 미만 교육과정'으로 '반일제'를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정의를 차용하여 1일 5시간 이내 기관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반일제 이하'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응답자의 특성: 기관병행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

### □ 가구의 특성

- 응답대상 가구는 대체로 3~4인 가구의 형태로 소규모 가구의 특징을 보여 동거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함.
- 가구원수와 가족유형의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그러나, 가구소득은 기관 병행 가구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비중이 6.4%로 기관 미이용 가구 4.1%보다 다소 높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비중도 기관 미이용 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표 4〉 응답 가구의 특성

				단위: %(명, 만원)
	구분	기관 병행 이용	기관 미이용	$\chi^2(df)$
가구원수	3명 이하	36.7	45.0	5.6(2)
	4명	49.1	42.4	
	5명 이상	14.2	12.6	
	평균(명)	(3.8)	(3.7)	
가족유형	부모 +자녀	90.6	94.0	5.8(2)
	3세대 이상 가족	7.1	5.3	
	기타(조손,한부모)	2.3	0.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4	4.1	8.0(3)*
	200~300만원 미만	30.5	36.2	
	300~500만원 미만	51.9	44.8	
	500만원 이상	11.3	14.9	
	평균(만원)	(339.12)	(340.81)	
계(수)		100.0(266)	100.0(734)	

\* $p < .05$

### □ 주양육자별 기관 병행 특성

〈표 5〉 주양육자별 기관 병행 이용 여부

				단위: %(명)
	부모	혈연	비혈연	$\chi^2(df)$
기관 병행 이용	27.7	37.5	11.2	15.8(2)***
기관 미이용	72.3	62.5	88.8	
계(수)	100.0(846)	100.0(56)	100.0(98)	

\*\*\*  $p < .001$

- 기관 병행 여부를 주양육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양육자별 기관병행 여부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혈연양육 가구에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러한 주양육자별 기관 병행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
- 가정 내 양육 가구 중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 846사례 중 27.7%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며, 조부모 등 혈연 인력이 주양육자인 경우는 37.5%, 비혈연의 타인이 주양육자로 있는 경우 11.2%가 기관을 병행 이용함.

#### □ 아동의 특성

- 기관병행여부에 따른 해당 가정 아동의 특성에서 총자녀수, 해당 영아의 출생순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총영아 자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만 36개월 미만 영아 자녀가 2명인 경우가 12.0%이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영아 자녀가 2명인 경우가 6.4%로 기관 병행 이용 가구보다 적었으며, 평균 영아 자녀수도 기관 병행 이용 가구 1.12명, 기관 미이용 가구 1.06명으로 나타남.
  - 즉, 기관 병행 이용 가구는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임.

〈표 6〉 기관 병행 여부에 따른 아동의 특성

구분		기관 병행 이용	기관 미이용	단위: %(명) $\chi^2(df)$
총 자녀수	1명	39.5	46.7	4.4(2)
	2명	51.9	44.8	
	3명 이상	8.6	8.4	
	평균(명)	1.69	1.63	
영아 자녀수	1명	88.0	93.6	8.5(1)**
	2명	12.0	6.4	
	평균(명)	1.12	1.06	
해당 영아의 출생순위	첫째	48.7	52.0	2.3(2)
	둘째	45.3	40.3	
	셋째이상	6.0	7.6	
	평균(째)	1.57	1.56	
계(수)		100.0(266)	100.0(734)	

\*\* $p < .01$

## □ 어머니의 특성

- 어머니의 연령은 기관 병행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과 취업경력은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기관 병행 이용 가구의 어머니는 평균 33.4세, 기관 미이용 가구가 평균 32.9세이고, 현재 취업 상태는 기관 미이용 가구가 취업중인 비율이 24.9%, 기관 병행 가구 어머니는 30.8%로 기관 병행 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음.
- 취업중인 경우 총 취업경력과 결혼 후의 취업경력도 기관 병행 이용 가구가 기관 미이용 가구에 비해 높았음. 총 취업경력은 기관 병행 이용 가구가 평균 90.9개월, 기관 미이용 가구가 평균 83.1개월이며, 결혼 후의 취업경력은 기관 병행 가구가 23.0개월, 기관 미이용 가구가 19.0개월임.
- 즉,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률과 취업경력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취업의지나 욕구가 높은 가구인 것으로 보임.

〈표 7〉 기관 병행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단위: %(명, 만원)

	구분	기관 병행 이용	기관 미이용	$\chi^2(df)$
연령	20대	13.2	16.0	1.2(2)
	30대	81.2	78.9	
	40대 이상	5.6	5.2	
	평균	33.4	32.9	
학력수준	고졸이하	31.2	23.4	7.6(2)*
	(전문)대졸	20.3	26.3	
	대학 졸업 이상	48.5	50.3	
취업상태	미취업	69.2	75.1	3.5(1)
	취업	30.8	24.9	
취업경력	5년 미만	24.4	27.0	10.4(3)*
	5~10년 미만	38.0	45.8	
	10~15년 미만	30.8	22.9	
	15년 이상	6.8	4.4	
	평균(개월)	90.9	83.1	

(표 7 계속)

구분	기관 병행 이용	기관 미이용	$\chi^2(df)$
결혼후 취업경력	없다	33.7	43.9
	3년 미만	37.1	34.3
	3~5년 미만	15.0	12.5
	5년 이상	14.2	9.3
	평균(개월)	23.0	19.0
계(수)	100.0(266)	100.0(734)	

\*  $p < .05$ 

## □ 기관 병행 여부별 기관 이용 시기에 관한 견해

- 이상적인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인식은 기관 병행 이용 여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가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관 병행 이용 가구'의 경우 2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기관 미이용 가구'의 경우는 5.9%에 불과하였음.
  -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는 '기관 병행 이용 가구'는 아동 생 후 26.9개월, '기관 미이용 가구'는 35.2개월로 8.3개월의 격차를 나타냄.
  - 즉, 현재 기관을 단시간이라도 병행하고 있는 가구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영아의 '기관 이용'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가치관을 보이고 있음.

〈표 8〉 기관 병행 여부별 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인식

구분	24개월 미만		계(수)	평균(개월)	$\chi^2(df)$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전체	10.9	89.1	100.0(1,000)	33.0	
기관 병행 이용여부별					
기관 병행 이용	24.8	75.2	100.0(266)	26.9	72.2(1)***
기관 미이용	5.9	94.1	100.0(734)	35.2	

## 3. 기관 병행 실태와 병행 이유

## 가. 기관 병행 이용 실태

- 가정 내 양육을 하며 기관을 단시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구 266사례만을 대상으로 기관 이용의 실태를 살펴 봄.

-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이용시작시기, 주평균 이용일수, 하루평균 이용 시간, 이용시간의 조정 가능성, 주관적 병행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기관 이용 실태는 <표 9>에 제시함.
- 현재 기관 병행 가정 내 양육 가구는 영아가 평균 생후 18.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기관 이용을 시작하였고, 주당 평균 4.8일, 하루 평균 3.7시간 이용함. 한편 이러한 기관 병행 이용 시작시기는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기(26.9개월)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남(표 8 참조).
  -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가정 내 양육 가구는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 가구의 평균 기관 이용 시간 7시간 42분 보다는 훨씬 단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9, 표 10 참조). 단, 주당 평균 이용일수는 5일에 가까워 단시간 꾸준히 매일 이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표 9〉 기관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비율	평균
이용 시작 시기	12개월 미만	15.5	18.6개월
	24개월 미만	50.0	
	36개월 미만	34.4	
주당 평균 이용 일수	5일 미만	8.0	4.8일
	5일 이상	92.0	
하루 평균 이용 시간	3시간 미만	5.2	3.7시간
	3~4 시간 미만	12.4	
	4~5 시간 미만	82.5	
이용 시간 조정 가능 여부	그렇다	85.7	
	아니다	14.3	
기관 이용 시 가정 내 양육과의 병행 형태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양육이 주된 형태이며 기관을 보내 보완하고 있음	88.1	
	기관 양육이 주된 형태이며, 가정 내 양육으로 보완하고 있음	11.9	
합계		100.0(266)	

〈표 1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이동		모취업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	모부재
5시간까지	12.1	3.9	3.6	10.5	5.9
5~6시간까지	12.8	16.9	8.0	22.0	3.9
6~7시간까지	16.8	18.2	9.9	24.3	9.8
7~8시간까지	16.6	20.6	17.0	21.1	9.8
8~9시간까지	16.5	19.1	21.8	14.9	19.6
9~10시간까지	11.8	13.3	21.7	4.7	21.6
10~11시간까지	8.9	4.3	10.2	1.7	23.5
11시간 이상	4.5	3.7	7.8	0.8	5.9
계(수)	100.0(553)	100.0(791)	100.0(577)	100.0(717)	100.0(51)
평균이용시간	7시간 42분	7시간 48분	8시간 38분	6시간 57분	9시간 16분
표준편차	2시간 8분	1시간 53분	1시간 55분	1시간 31분	3시간 15분
F/t	-0.9		159.9**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2-22> 재구성. p.190

- 현재 이용하는 기관 이용 시간은 대부분 조정가능하여서, 85.7%가 조정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기관 이용 시간의 융통성이 있어 가정 내 양육을 하면서 필요할 때 시간을 조절해 가며 이용하는 형태일 것으로 짐작됨.
- 기관 병행 가구는 현재 가정 내 양육을 주로 하고 있고 기관 이용은 가정 내 양육을 보완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8.1%가 '가정 내 양육이 주된 형태이고 기관을 보내 보완하고 있다'고 응답함.
- 즉, 영아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구의 기관 이용은 다분히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틈새를 보완하는 용도인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용 행태는 매일 단시간 꾸준히 이용하는 형태로서, 가정에서 영아기 자녀를 돌볼 인력이 존재하여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라도 단시간 기관 양육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 나. 기관 병행 이용 이유

- 가정 내에서 영아기 자녀를 돌볼 인력이 존재하여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시간으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 봄.

- 가정 내 양육가구의 기관 이용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아이 보는 사람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함(56.6%)'이었음(표 11 참조).

〈표 11〉 기관 병행 이용 이유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① 아이 보는 사람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56.6	12.4
② 집에서 하루 종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4.1	13.0
③ 대리 양육자의 장시간 비용이 부담되어서	1.1	2.4
④ 아이의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21.0	28.4
⑤ 아이의 교육상 좋을 것 같아서	6.4	21.8
⑥ 기관에 보내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4.1	7.3
⑦ 어머니의 취업 활동을 위하여(퇴근시간 불규칙등)	6.0	3.3
⑧ 아이가 어려 기관에 오래 있는 것을 힘들어 해서	-	6.2
⑨ 기관 이용 가능 시간이 원하는 시간보다 짧아서	-	2.4
⑩ 기타	0.8	2.8
합계	100.0(266)	

- 가정 내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아이의 교육이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임(27.4%). 이밖에 주양육자가 하루종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13.0%) 발생하는 시간적 부족분을 기관에서 채우고자 하는 경우도 2순위 응답에서 주요한 이유로 지적됨.
- 가정 내 양육 가구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가정 내 양육'만을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우려하고 있는 '순수한 가정 내 양육'의 단점과 일치하고 있었음(표 12 참조).

〈표 12〉 순수한 가정 내 양육시 애로사항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① 아이와 놀아줄 거리가 부족함(교재·교구·프로그램 등)	35.6	14.6
② 사회성 발달이 염려됨	21.9	20.5
③ 육아 외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움	20.8	17.7
④ 아이를 보는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움	11.7	23.8
⑤ 아이의 성장·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3.6	8.5
⑥ 불가피할 경우 아이 양육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음	6.3	14.6
⑦ 기타	0.2	0.1
합계	100.0(734)	

- 즉,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양육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가정 내 양육’이 완벽한 양육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기관 이용의 장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관을 병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주양육자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함으로,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주양육자에게 모든 양육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이며, 이는 곧 돌보고 있는 자녀에게도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 이러한 결과는 곧 기관이 취업모를 위한 완전한 ‘대리양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개별 양육자’를 위한 양육의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을 위한 양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님을 의미함.
- 앞서 <표 5>에서는 주양육자에 따라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음. 즉, 조부모 등 혈연 인력과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비혈연 인력이 주양육자일때보다 높아,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여 고용하는 비혈연 인력보다는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볼 때 육아부담 감소의 목적에서 기관을 병행할 동기가 더욱 높은 것으로 짐작됨.

<표 13> 아동 연령별 기관 병행 이용 이유(1순위 응답)

단위: %(명)

구분	아동연령			전체
	0세	1세	2세	
① 아이 보는 사람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65.4	65.6	50.0	56.6
② 집에서 하루 종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	1.1	6.7	4.1
③ 대리 양육자의 장시간 비용이 부담되어서	-	2.2	0.7	1.1
④ 아이의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15.4	14.4	25.3	21.0
⑤ 아이의 교육상 좋을 것 같아서	7.7	4.4	7.3	6.4
⑥ 기관에 보내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3.8	6.7	2.7	4.1
⑦ 어머니의 취업 활동을 위하여(퇴근시간 불규칙등)	7.7	4.4	6.7	6.0
⑩ 기타	-	1.1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26)	(90)	(150)	(266)

- 기관에 보내고 있는 아동의 연령별로는 기관 병행 이유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됨. 모든 연령에 걸쳐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이 보는 사람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지만, 만 2세가 되면 '아이의 다양한 경험', '아이의 교육' 등 아이를 위한 목적으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표 13 참조).

- 즉, 가정 내 양육 가구가 기관을 단시간 병행하여 이용하게 될 때 최초에는 '아이 보는 사람', 즉 양육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게 되나,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이를 위해서도' 기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됨.

#### 4. 정책 제언

##### 가. 실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

- 부모의 취업 상태, 기관 보육을 원하는 목적과 시간 수요 등 다양한 보육 욕구의 파악이 필요함.
  - 0~2세 영아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도 기관을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1,000사례 중 26.6%에 해당하여 단시간 보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3.7시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나 주 평균 이용은 4.8일로 매일 꾸준하게 이용하는 형태로 단시간 기관 양육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 욕구가 존재함.
-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개발 필요
  - 기관 이용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비취업모 혹은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이용 목적과 필요 시간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육 시간과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종일제 기관 위주의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다양한 욕구에 맞춘 기관의 다양화가 필요.
-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 필요
  -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함

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만 36개월 미만 영아의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육아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측됨.

- 주양육자별로는 고령의 친인척이 주양육자일 경우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지워지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면에서 기관 병행의 장점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기관은 가정 내 양육 가구 주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소시켜 아동에게 좀더 질 높은 양육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하루 종일 양육을 담당하는 주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단시간 보육 서비스, 파견 인력에 의한 단시간 서비스, 정보교류와 휴식이 가능한 양육휴식공간 설치 등 다양한 양육 부담 경감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나. 정책 제언

- 가정 내 양육 가구 중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특성과 병행 이유 등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에 근거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1) 가정 내 양육자 없는 취업모 가구 위주로 영아 종일제 보육 제공

- 단시간 기관 병행은 어머니, 혈연·비혈연 인력 등 가정 내 양육자가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아에 대한 종일제 보육은 가정 내 양육자가 없이 기관만을 이용하는 취업모 위주로 제공되어야 함.

### 2) 가정 내 양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관 이용 지원

- 단시간 보육 욕구에 부응한 기관 보육 서비스 모델 개발
  - 기관의 단시간 보육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 가구는 대부분 영아기 자녀에 대해, 특히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지닌 가구이나, 그럼에도 가정 내 양육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기관 병행 가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완하는 형

태로 기관을 병행 이용하고 있었음.

- 종일제 기관 이용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다양한 경험 등을 이유로 단시간 비교적 꾸준한 형태의 기관 이용 욕구가 있음이 드러남.
- 이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종일제 보육 서비스 모델’ 과 차별화되는 가정내 주양육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기관 단시간 병행 보육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경우 보육료 지원도 종일제 기준이 아닌 반일제 이하 시간제 모델을 개발하여 이에 기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짐이 적절함. 이는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 어린이집’과는 다른 정기적인 형태임.
- 이러한 단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아동의 수에 따른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함이 타당함.

### 3)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정보 제공

#### □ 양육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가정 내 양육 가구는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과 양육 역량에 의존적인 구조로 양육자 개인의 부담도 크고, 양육 정보 등에 어둡고 자칫 폐쇄적인 양육이 되어 아동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에게도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원하는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또한 어떠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구청과 동별 주민자치센터 등이 자치구내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과 프로그램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참고문헌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지원 방안-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pp.111-128.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  
아지원 내실화 방안(Ⅱ)-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  
로. 육아정책연구소.